달라진 경륜 대진 방식, 배당판이 요동친다

쌍승·복승·삼복승, 평균 배당 두배로 껑충

〈전반기에 비해〉

독립 대진→예선→결승 방식 변경
강자끼리·약자끼리 혼전경주 양상
변수 많은 금요일 공격적 투자 찬스

경륜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역주하는 선수들. 하반기 경륜 대진 방식이 1일차 독립 대진, 2일차 예선, 3일차 결승으로 바뀌면서 혼전 경주의 증가와 함께 평균 배당도 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 대진 방식이 달라지면서 혼전 경주가 대폭 늘고 배당판도 요동치고 있다. 쌍승, 복승, 삼복승 평균 배당은 전반기에 비해 두 배 정도 상승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경륜 경주의 대진 방식을 바꾸었다. 상반기까지 실시했던 트라이얼(1, 2일차 예선 성적 합산 상위 7명 결승전 진출) 방식을 1일차 독립 대진, 2일차 예선, 3일차 결승으로 변경했다. 다양한 형태의 편성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독립 대진으로 치러지는 금요일은 변화가 뚜렷했다. 예전에는 각 등급 시드 배정을 받는 강자들이 분산된 것에 반해, 새로운 방식에서는 강자는 강자대로 약자는 약자대로 어울리는 등 혼전 성격의 경주가 대폭 늘어났다. 선발, 우수급과 특선급 일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상지 '최강경륜'이 1월부터 6월까지 광명 26회차 1205경주, 후반기 7월 이후 5회차 총 267경주 결과를 토대로 승식별, 등급별 평균 배당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금·토·일요일 3일 합계 쌍승식은 전반기 평균 배당은 22.2배였지만 후반기는 40.1배로 껑충 뛰었다. 복승과 삼복승도 각각 10.6배→17.9배, 17.9배→28.3배로 상승했다.

배당은 편성이 대폭 바뀐 금요일이 가장 변화가 심했다. 전반기 금요일 경주는 쌍승 평균 배당이 18.2배로 토요일(27.1배)과 일요일(22.1배)에 비해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 쌍승 35.5배를 비롯해, 복승 17.1배(전반기 8.0배), 삼복승 28.0배(전반기 11.9배)로 약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토, 일요일의 복승식(토 13.2배→19.5배, 일 10.8배→17.1배)과 삼복승(토 24.0배→29.3배, 일 18.5배→27.5배) 평균 배당의 상승폭 보다 훨씬 높았다.

변화는 등급별로도 나타났다. 선발·우수·특선급의 쌍승 평균 배당이 전반기에 각각 22.2배, 22.9배, 21.3배였지만 후반기는 42.9배, 37.4배, 40.7배로 높아졌다. 쌍승이 복승, 삼복승에 비해 높아진 것은 유력했던 우승후보가 2위로 밀려난 경주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진 방식에서 첫날인 금요일은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전법, 집중력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또한 과거 소극적이던 각 등급의 약체들이 최근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나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전과 달리 이변을 야기하는 요인이다.

'최강경륜'의 박창현 발행인은 "가장 조심해야 할 금요일은 중고배당의 공격적 투자를, 토요일은 강자들이 분산되는 만큼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에서 극저배당 또는 초고액 배당의 양극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일요일은 다양한 편성에서 배당이 저·중·고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해 요일별, 등급별로 베팅 전략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경륜경정, 고객만족 주제 직원 CS교육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16일부터 24일까지 19회에 걸쳐 '2019 하반기 고객 접점 직원 CS 교육'을 실시한다. 경륜경정총괄본부 직원들의 CS 역량 강화와 서비스 마인드 향상으로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광명경륜장, 미사리경정장, 17개 장외지점의 고객 접점 직원 5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진정한 고객만족의 의미'라는 주제로 서비스의 기본인 인사와 미소가 고객에 주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각종 CS 사례를 통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경륜 선수·경륜 직원 인권 교육도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8일 스피돔 광명홀에서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2019년 제3차 경륜 선수 및 직원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나효진 강사가 스포츠 인권 상황 실태 사례와 유형을 강의했다.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및 현장,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매년 경륜 선수와 직원들의 인권의식 고취 및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인권교육은 물론 스포츠 윤리, 도핑방지 등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1코스 배정 유력한 심상철·조성인 우승 2파전

상반기 경정 왕중왕은 누구?

예선 1위 통과가 우승 열쇠
김응선·김현철도 다크호스

상반기 경정 최고의 선수는 누구일까. 2019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경정 왕중왕전이 14일과 15일 미사리경정장에서 열린다. 우승 상금 1500만 원으로 상금왕을 노리는 강자라면 결코 놓칠 수 없는 경주다.

1회 차부터 27회 차까지 성적 상위 12명이 나선다. 대상경주 같은 빅이벤트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기량면에서 출중하다. 최상급 모터만 선별해 예선 출전 선수들에게 배정하기 때문에 모터 우열도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배정 코스가 특히 중요하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려면 결승서 유리한 코스를 배정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선을 1착으로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적을 통해 예선 코스가 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코스 배정이 유력한 심상철(7기)과 조성인(12기)이 우승 0순위 후보다. 2016시즌과 2017시즌 왕중왕전 우승자인 심상철은 자타공인 경정 최강자이다.

심상철 조성인 김응선 김현철

2008년에 데뷔해 대상 우승만 10회를 기록할 정도로 큰 경기에 강하다. 이 중에서 1코스 우승이 6회나 된다. 1코스를 배정받아 결승에 진출하면 거의 대부분 우승을 했다는 것이다.

조성인의 상승세는 무섭다. 강력한 스타트 능력과 더불어 전속 선회 능력은 심상철 못지않거나 오히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기세가 좋다. 지난 시즌 쿠리하라배 우승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으며 확실한 강자로 올라섰다. 심상철에 비해 경험은 부족하지만 올 시즌 1코스 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다. 예선을 1위로 통과해 결승전 1코스를 배정받게 된다면 우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응선(11기), 김현철(2기)도 빼놓을 수 없는 우승후보다. 스타트 최강자인 김응선은 2017시즌과 2018시즌 그랑프리 경정에서 심상철과 우승과 준우승을 한 차례씩 나눠 가질 정도로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있다.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김현철은 지난 시즌 왕중왕전 우승에 이어 대회 2연속 제패를 노린다.

이밖에 유석현, 서휘, 이주영, 김완석, 박설희, 김지현, 문주엽, 안지민도 스타트나 운영면에서 전혀 밀릴 것이 없는 선수들인 만큼, 왕중왕전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다.

정용운 기자

toto 스포츠토토

"상승세 탄 홈팀 KIA, 두산도 꺾는다" 50%

야구토토 스페셜 82회차 중간집계
롯데 승리 49%·한화 승리 53% 예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14일(수)에 열리는 2019시즌 한국프로야구(KBO)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82회차 투표율 중간 집계 결과, 참가자의 49.90%가 KIA-두산(2경기)전에서 KIA의 우세를 전망했다고 밝혔다.

원정팀 두산의 승리 예상은 35.47%로 나타났고, 양 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은 14.63%를 기록했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KIA(4~5점)-두산(2~3점)이 7.02%로 1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KIA(6~7점)-두산(4~5점)과 KIA(6~7점)-두산(2~3점)이 각각 5.22%와 4.98%로 그 뒤를 이었다.

리그 7위 KIA와 3위 두산이 만난다. 이번 주 SK, KT전을 앞둔 KIA의 상황에서 상위권 두산과의 만남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정이다. 다만, 이번 주 일정을 잘 이겨낸다면 KIA는 가을 야구의 희망을 다시 살려볼 수 있다.

KIA는 후반기 들어 전혀 다른 팀이 됐다. 후반기 12경기에서 8승4패(승률 0.667)를 기록한 KIA는 두산(0.583·2위)과 SK(0.571·3위)를 제치고 승률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투타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에이스' 양현종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박준표, 하준영, 전상현 등의 불펜이 더욱 단단해진 KIA다.

롯데-KT(1경기)전에서는 롯데의 승리 예상이 49.23%를 차지했고, 원정팀 kt의 승리 예상은 36.47%를 기록했다. 양 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은 14.30%로 가장 낮았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롯데(6~7점)-(2~3점)이 6.36%로 최다를 기록했다.

마지막 한화-NC(3경기)전에서는 한화 승리 예상(53.46%), NC 승리 예상(33.45%) 양 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13.09%) 순이었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한화(6~7점)-NC(2~3점)이 7.4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야구토토 스페셜 82회차 게임은 경기 시작 10분 전인 14일 오후 6시20분 발매가 마감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적중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오늘 KBO리그 3경기 승부를 맞혀보세요

케이토토 페이스북 매치업 이벤트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portstoto.toto.proto)을 통해 14일(수)에 열리는 국내프로야구(KBO) 경기를 대상으로 승부를 맞히는 'MATCH UP'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에 지정된 대상경기는 14일 오후 6시30분에 벌어지는 2019 KBO 리그 롯데-KT, 한화-NC, LG-키움전이다. 이벤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해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위 세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댓글을 남기면 되며, 경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3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피자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에서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시즌 맞대결 성적은 2승1무8패로 홈팀 롯데가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NC전은 상대전적에서는 최하위 한화가 5위 NC에게 3승7패로 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지막 LG-키움전에서는 만날 때 마다 치열한 경기를 치르는 양 팀인 만큼 5승7패로 거의 비슷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4위를 달리고 있는 LG와 2위 키움의 대결인 만큼 양팀의 승부가 이번 이벤트 적중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합법 스포츠베팅 스포츠토토 뿐입니다

최근 불법스포츠도박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모든 스포츠베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고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수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만이 유일한 합법이며, 이외의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도박으로 간주되는 범법행위이다. 온라인 역시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만이 유일하게 합법 사업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 역시 국내에서 이용한다면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합법사업인 스포츠토토를 구매할 경우, 거의 대다수의 수익금이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